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11월 17일 오후)

논술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험번호 () 지원학과(부) () 성명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임.
-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 5. 제목을 쓰지 말 것.
-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As we grow older, we rely on communication to survive and to thrive. Our effectiveness in communicating affects what jobs we get and how much we earn to pay for medical care, food, leisure activities, and housing. Recent research shows that positive, cheerful communication from casual acquaintances and neighbors increases our sense of well-being. Even more important to our health is good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close friends. Heart disease patients with str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ffer less than those without such relationships, cancer patients who are married live longer than those without a spouse, and arthritis* patients who have strong social support experience less severe symptoms than those without such support.

- Julia Woo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veryday Encounters*

* 관절염

<제시문 B>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can occur on a large scale, such as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as well as on a smaller scale between individual employees. Failure to communicate effectively often leads to conflict, which can be harmful to an organization. For instance, an employee may be waiting for a colleague to deliver key information to complete a task on time. If the colleague does not respond to the request for a status report or neglect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e employee may begin to worry that the required task will not b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As a result, conflict between the two may occur.

- *The Houston Chronicle*

(자료 1)

미국의 한 동물 심리학자가 동물들의 의사 전달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굶주린 침팬지 두 마리를 울타리 안에 넣고 밖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는 상자를 놓아 두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줄을 울타리 안으로 늘어 놓았다. 허기진 두 마리의 침팬지는 단숨에 손을 뻗어 그 줄을 각각 하나씩 잡고 힘껏 바나나 상자를 끌어당겼지만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둘이 힘을 합해서 동시에 줄을 잡아당길 때만 상자가 끌려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마리는 계속 승강이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서로 줄을 잡아당기다 보니 우연히 둘의 호흡이 맞을 때가 있었는데, 이 때 상자가 약간씩 움직였다.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두 마리의 침팬지는 드디어 서로 힘이 합해 질 때만이 상자가 끌려온다는 사실을 알아 내고 결국 상자를 끄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에서 그 중 한 마리를 다른 것과 바꿔 넣었다. 한 마리는 상자를 끌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은 처음의 실험에서와 별 차이가 없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자료 2)

환공이 회당 높은 곳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고, 윤편은 회당 낮은 곳에서 수레를 깎고 있었다. 윤편이 환공에게 물었다. “공께서는 지금 무슨 말들을 읽고 계십니까?” 환공이 “성인의 말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윤편이 “그 성인은 살아 있습니까?”라고 묻자 환공은 “그는 죽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윤편은 말했다. “그렇다면 공께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옛 사람들의 찌꺼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환공이 말했다. “수레바퀴나 깎는 장인인 주제에 내가 지금 경전을 논하려 하는가!” 그러자 윤편이 말했다. “저는 그것을 제 자신의 일에 근거해서 본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영성하게 작업하면 험령해져 견고하게 되지 않고, 꼭 끼게 깎으면 빠듯해서 서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영성하지도 꼭 끼지도 않게 작업하려면 저는 그것을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제 아들에게 전달할 수 없고 제 아들도 저에게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70이 되도록 제가 직접 바퀴를 깎고 있는 이유입니다. 옛 사람은 자신이 전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께서는 지금 옛 사람들의 찌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강신주,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자료 3)

사람다움 혹은 사랑으로서의 인(仁)을 제시한 공자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근원적 동일성(같음)과 연관성(평등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끼리 혹은 우주만물과도 함께 서로의 다양성(다름)을 다양성으로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이도관지(以道觀之)와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은 연기설(緣起說), 공(空)과 중도(中道),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만물을 이것과 저것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있음과 없음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내가 소중할 만큼 너도 소중하다는 사랑이 우러나오게 된다고 했다. 원효는 긍정과 부정, 분석과 종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하는 화쟁(和靜)의 논리를 제시했고, 퇴계도 분석과 종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같음 가운데서도 다름을 보고 다름 가운데서도 같음을 보는 변증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자료 4)

용자의 아래위를 훑어보던 세탁소 주인 남자가 제 세탁소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 자식들, 우리 한국 와서 돈 엄청 벌었을 것이여?”

웃을 기다리던 남자가 맞장구를 친다.

“하야간 여기 가리베가스 상권을 요새는 그자들이 다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온 자들이라 그런지 의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저 앞에 군복 말여, 나 오천 원에 떼와 육천 원에 팔아. 그런데 이 떠놈들이 그걸 삼천 원에 달라 그래, 내참.”

“거 뿔이나, 나는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인권이 어떻게 해썬 목사, 교수들 말 듣고 분개까지 했다니까. 뭐? 핍박?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녀? 어이, 김사장, 삼십 년 전에 우리 막 서울 와서는 어쨌어. 자국민 핍박받을 때는 암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외국인들 인권이 어찌네, 야만이네, 하야간 배운 인간들 하는 짓거리란 이제나저제나 맘에 안 들드만 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유식한 인간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자국민 이기주의라나, 뭐라나, 우리같이 못사는 자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자국민 이기주의 해야지 안 해?”

숫제 용자의 존재는 무시하고 저희끼리 시끄럽다.

- 공선옥, 「가리봉 연가」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우리말로 기술하고, 공통된 논지를 밝히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된 논지와 관련하여 (자료 1)과 (자료 2)에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가 (자료 1)과 (자료 2)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4)에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유형들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자료 3)의 관점에서 두 남자의 의견을 비판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지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